

# “도민 문화 향유 확산 최선”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취임

문화에 대한 현실 참여  
사각지대 예술인 처우 개선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화예술  
이끌 인재육성 등 비전 발표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9일 재단 2층 미리내에서 이기전 대표이사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들만 참여해 간소하게 치러졌다.

이 대표이사는 이날 취임사에서 ▲문화에 대한 현실 참여와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 ▲문화예술의 기본 동력인 예술인의 복지 향상과 사각지대 예술인들의 콘텐츠 협약 및 처우 개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문화예술관광을 이끌어갈 인재육성과 인적 동력원 구축, ▲일반적 기부가 아닌 기업과 문화예술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 프로젝트 등의 비전을 언급했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출범 5년 차에 접어든 재단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해 전문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지역 예술인들과 도민의 문화 향유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일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취임식이 재단 2층 미리내에서 열렸다. 사진은 송하진 도지사(왼쪽)가 전북도청에서 이기전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이기전 대표이사는 전주 영생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미술학사,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삼례문화예술촌 VM아트미술관 및 전

주현대서관 관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 ‘갑상선 수술과 음성’

전북대병원 홍기환 교수  
교수생활 35년 경력 총망라  
전문 영문서적 발간



수술 후 나타나는 음성 변화에 대한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교수는 “지난 35년간 갑상선 환자를 치료하고 연구했던 경험들을 모아 한권의 책으로 묶었다”며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 이비인후과 홍기환 교수가 교수생활 35년 동안 경험했던 갑상선 수술 후의 여러 증상들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단독 전문 영문서적 ‘갑상선 수술과 음성(Thyroidectomy and Voice)’을 출간했다.

최근 갑상선 수술의 증대로 수술 후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아 수술 후 합병증 없이 수술하는 것이 수술 후 환자의 질향상에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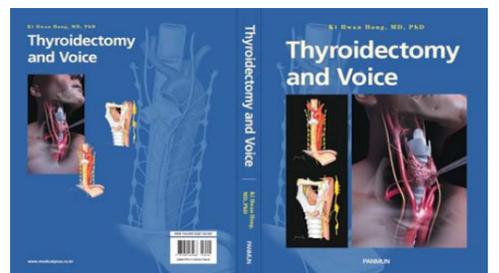
홍기환 교수는 총 6챕터로 구성된 이 책에서 갑상선 수술 후 나타나는 목이물감, 음성의 변화 및 삼킴 장애에 대한 이론 및 실재를 정리해 국내 및 외국의 전문가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적은 특히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 유방갑상선외과는 물론 갑상선을 전문으로하는 내분비대사내과에도 많은 의학적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성과 언어를 전공하는 언어치료사에게도

“이 책이 갑상선을 치료하는 국내외 의료진은 물론 갑상선을 공부하는 의과대학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기환 교수는 대한 음성언어학회 회장 및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부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학술-연구활동을 해왔으며 많은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에는 KBS 명의에 선정돼 방송에 소개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갑상선 수술과 음성(Thyroidectomy and Voice)’ 책 표지

## 이색적인 비파의 선율

국립민속국악원, 13일 정영범 연주자 초청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예원당의 풍류마루 공연에 국내 유일의 남성 비파 연주자인 정영범이 출연해 비파 산조와 창작음악 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랑의 꿈, 침향무, 연리지 등 한국 비파음악과 중국 비파음악을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자리로 그동안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채롭고 이색적인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정영범은 동량청소년종합예술제 국악부문 대상(2009) 수상자로, 영국 예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아티스트로 참석해 화려한 비파연주를 선보인 실력자이다.

관람은 사전 예약제(선착순 100명)로, 전화(063-620-2324)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예약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정읍시립국악단, 정읍사공원에서 국악공연

매월 둘째 주 버스킹·넷째 주 목요일 특별출연자와 협연

정읍시립국악단은 도심 속 힐링명소로 자리 잡은 정읍사공원을 무대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밤 7시 30분에 국악공연을 개최한다.

둘째 주 목요일은 작은 상설공연이란 타이틀로 시립국악단원이 소그룹으로 참여해 국악 버전 버스킹(길거리) 공연을 선보인다.

넷째 주 목요일은 큰 상설공연이란 타이틀로 시립국악단 전체와 특별출연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한다.

공연 프로그램은 가야금병창〈사 계〉, 재향순류 즉흥무〈허튼춤〉, 대금산조, 대중가요〈속대

머리〉, 〈삼사화〉, 〈남도민요〉로 연주부 배상철 단원을 비롯한 국악단원 6명이 평소 단체공연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개개인의 끼를 풀어 놓을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 관람이며, 우선 시 야외공연 특성상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 마스크 준비 및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가 필요하다”며 “예방수칙 준수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서로 간 약속인 만큼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2020 선비문화 아카데미’ 개최

내달 1일부터 8월 5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은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2020 선비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국립전주박물관의 ‘조선 선비문화’ 브랜드화 및 특별전 ‘서원, 여진’을 높이고 선비를 기르다’ 연계 강의로 마련됐으며, 매주 수요일마다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도민 60명을 모집, 1회 신청으로 6주 동안 참여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누리집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적용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전주박물관 관계자는 “2020년 선비문화 아카데미가 전북 도민의 ‘조선 선비’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원의 가치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